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위로의 말은?



- ① “생일 축하해.”
- ② “칭찬해 줘서 고마워.”
- ③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 ④ “잘한다.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2.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 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며 발표한다.
- ② 적절한 말투와 목소리로 발표한다.
- ③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 ④ 발표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 속 샘물은
별레들 거울

별레 잠들면
산짐승 거울

산짐승 잠들면
별들의 거울

별들도 잠들면
산봉우리 거울.

- 유경환, 「샘물」 -

3.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연극을 하기 위해 쓴 글
- ② 주장하기 위해 근거를 들어 쓴 글
- ③ 운율을 살려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으로 쓴 글
- ④ 새로운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쓴 글

4. 위 글에서 밑줄 친 ‘샘물’을 비유한 것은?

- ① 거울 ② 별레 ③ 산짐승 ④ 산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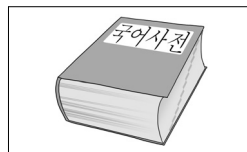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씨름 기술은 허리 기술, 다리 기술, 손 기술 등으로 ㉠ 나눌 수 있습니다. 허리 기술은 상대방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서 부리는 여러 가지 기술을 말합니다. 다리 기술은 상대방을 자기의 다리로 걸고 부리는 기술, 손 기술은 손을 사용하여 부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5. 위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씨름의 기술 ② 씨름의 종류
- ③ 씨름의 기원 ④ 씨름이 열리는 곳

6. ㉠의 뜻을 알기 위해 다음의 사전에서 찾아야 할 낱말은?



- ① 나눌 ② 나누다
- ③ 나누고 ④ 나눠서

7. 문장의 호응 관계가 바른 것은?

- ① 나는 내일 소풍을 다녀왔다.
- ② 동생은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 ③ 앞으로 나는 너와 더욱 친하게 지냈어.
- ④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제주도를 다녀왔다.

8. 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은?

말은 상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높임말은 웃어른께 하는 말로서, 거기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해.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 사용하는 낱말이 다르지. 예를 들면, ‘밥’은 예사말이고 높임말은 ‘진지’라고 해. 예사말인 ‘먹다’라는 낱말은 높임말로 ‘잡수시다’라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린다면 “(㉠)”라고 해야 하는 거지.

- ① 할아버지, 밥 먹어. ② 할아버지, 밥 잡수세요.
- ③ 할아버지, 진지 먹어. ④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9.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 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 ②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 ③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 ④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널리 알리자.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 말을 많이 볼 수 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거리에 게시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어렵고 낯선 외국 말보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 말로 표현된 문구를 우리말로 충분히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부르기도 쉽고 더 정겹다.

또, 우리말 중에는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리’, ‘시나브로’, ‘나비잠’, ‘여우비’, ‘(㉠)’ 등은 살려 쓸 만한 아름다운 순우리말이다.

10. 위 글의 중심 생각은?

- ① 게시물을 정해진 곳에 붙이자.
- ②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쓰자.
- ③ 거리에는 외국 말이 많이 있다.
- ④ 외국 말로 표현된 문구를 많이 쓰자.

11. (㉠)에 들어갈 수 없는 낱말은?

- ① 여울 ② 새참 ③ 에어컨 ④ 미리내

12. 다음과 같은 형식의 문장은?

어부가 고기를 잡는다.

- ① 말이 빠르게 달린다. ② 날씨가 매우 따뜻하다.
- ③ 나는 동화책을 읽는다. ④ 내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13. 밑줄 친 얼굴이 ‘명예’ 또는 ‘체면’의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새 얼굴이 등장하였다.
- ② 내 얼굴을 생각해봐도 잘해라.
- ③ 우리 엄마는 얼굴이 정말 예쁘다.
- ④ 처음 본 얼굴인데 매우 낮익었다.

14. 다음 신문 기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 중 옳은 것은?

주민 화합의 날 행사 열려

2014년 3월 10일, 행복 마을 주민들은 무궁화 공원에서 ‘마을 주민 화합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서로의 정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이 모여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 ○○일보, 정○○ 기자 -

<보기>

누가	: 행복 마을 주민들
㉠ 언제	: 2014년 3월 10일
㉡ 어디서	: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 무엇을	: 무궁화 공원에서
㉣ 어떻게	: ○○일보, 정○○ 기자
왜	: 서로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 ① ㉠ ② ㉡ ③ ㉢ ④ ㉣

15.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대화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바르게 말한 사람은?

- ① 하성: “상대방을 존중하며 글을 써야 해.”
- ② 순영: “정확하지 않은 말을 무조건 퍼뜨려도 괜찮아.”
- ③ 은지: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글을 써도 돼.”
- ④ 재훈: “인터넷의 모든 글은 허락 없이 내 것처럼 그대로 써도 돼.”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후 네 시쯤 되어 우리는 외돌개에 도착하였다. 외돌개는 울레 6코스가 끝나는 곳이다.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외돌개와 푸른 솔숲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해안가를 따라 크고 작은 육각기둥 모양의 돌기둥이 절벽을 이루었고, 파도가 달려와 하얀 거품을 내며 철썩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16. 위 글에서 글쓴이가 직접 본 것이 아닌 것은?

- ① 파도 ② 외돌개
- ③ 한 폭의 그림 ④ 푸른 솔숲

17. 기행문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쓴다.
- ② 여행한 시간과 장소가 잘 나타나게 쓴다.
- ③ 여행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쓴다.
- ④ 가지 않은 장소도 가 본 장소로 써야 한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로와 파트라세는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눈을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파트라세가 눈을 헤집더니 갈색 지갑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네로는 지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파트라세, 아로아 아버지의 지갑이야!”

(나) 때: (㉠)

곳: 마을로 가는 거리

나오는 사람: 네로, 파트라세

불이 켜지면 네로와 파트라세가 눈길 위에 서 있다.

네로: (놀란 목소리로) 파트라세, 아로아 아버지의 지갑이야!

18. (나)는 (가)를 바꾼 글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① 개나리 피는 봄날 ② 태양이 뜨거운 여름
- ③ 낙엽 떨어지는 가을 ④ 눈보라 치는 겨울날

19.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쓴 글인가?

- ① 연극 ② 연설 ③ 토의 ④ 시낭송

20. (가)를 (나)로 바꾸어 쓸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 ① 해설, 지문, 대사로 표현한다.
- ② 현재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 ③ 인물의 성격이나 생각이 잘 나타나게 쓴다.
- ④ 인물의 표정, 행동, 목소리 크기는 생략해야 한다.